

중국의 세계 성장에 대한 기여도 - 2008년에는 22%

UN(United Nations : 國際 聯合)이 베이징(北京)에서 공포(公布)한 2009년 세계 경제 현황과 전망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, “중국은 여전히 동아시아(東asia) 및 세계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고 있는데, 구미와의 무역이 쇠퇴되면서 중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아시아 여러 나라의 경제 발전은 둔화되었다. 따라서 중국은 새로운 경제 전략으로 성장을 지킬 필요가 있다.”고 지적하고 있다.

이 보고에 따르면 중국의 2008년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약 22%이며, 2009년에는 기여도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. 대다수 선진국 경제가 쇠퇴기로 돌입하고 있기 때문이다. 중국의 성장률도 함께 둔화하였는데, 중국에서는 2007년 중국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11.9%였는데, 2008년에는 9.1%로 떨어진 예가 보여주듯, 여전히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확보하고 있다.

2009년에 중국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8%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. 이 보고에서는, 만일에 중국 국내 최종 수요가 계속적으로 커지지 않으면, 반대로 떨어지는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.

중국은 이미 2009년과 10년에 중국 국내 총 생산의 15%가 되는 5,860억 달러의 재정 자극책(財政 刺戟策)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. 자극책의 목표는 내수를 자극함으로서 인프라(infra : infrastructure : 經濟 基盤)를 정비하기 위한 투자와 소비를 중점으로 잡고 있다. 목표는 주로 저소득자층(低所得者層)을 위한 주택, 농촌의 인프라, 수리(水利), 전기(電氣), 운수(運輸), 환경(環境), 기술 혁신(技術 革新), 피해 지역 재건과 특히 5월 12일의 지진 피해 지역을 대

상으로 하고 있다.♣